

보도시점 (전매체) 9. 27(금) 10:00

## 오영주 장관, 미래 대비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령 CEO 증가, 후계자 부재 등에 따라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대표자 연령 60대 이상 전체 중 약 32%, 후계자 없는 기업의 약 31%는 친족 외 제3자 승계 선호)
- 자본시장연구원, 중소기업의 M&A형 기업승계 수요 추정 결과 약 21만개,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 고려 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M&A 수요 발굴·매칭·자금 지원 등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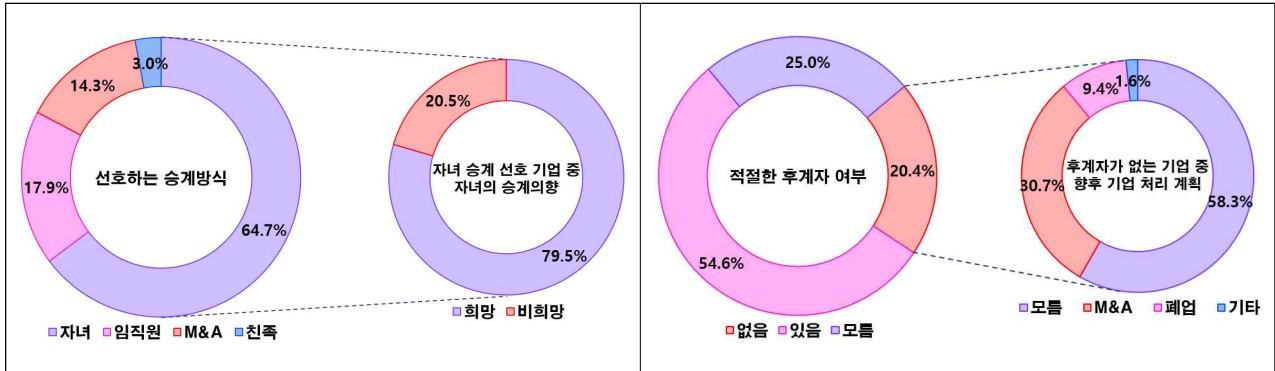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고령 CEO가 증가 추세이나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 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1/3(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1/5(20.5%) 이상이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전체 중 20.4%)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약 21만개('22년 기준)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지역별 인구,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총생산, ▲1인당 GDP 등 고려

한국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7년 전인 '08년부터 후계자 부재 기업의 해결책으로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주목하여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M&A 성사건수는 연간 3,000~4,000건이며 후계자 부재율\*은 60%대에서 약 54%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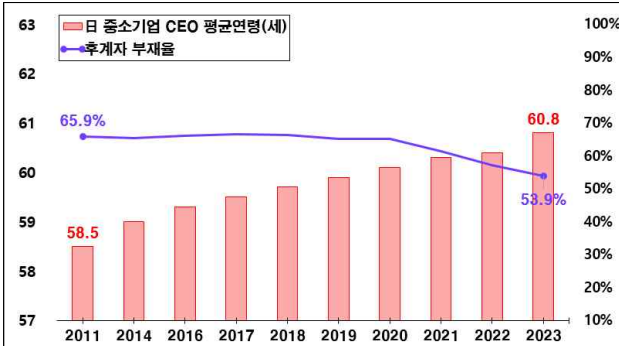
\* 후계자 부재율 추이('23년 일본 후계자부재율 동향조사)  
: ('20) 65.1% → ('21) 61.5% → ('22) 57.2% → ('23) 53.9%

한국 역시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10년 전에 비해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표가 전체 경영자의 약 1/3로 증가\*\*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 UN은 2045년 이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주요국 중 1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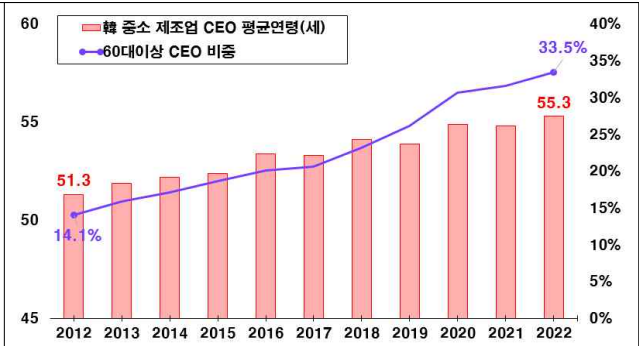
\*\* 中企제조업 CEO 60세 이상 비중(中企 실태조사) : ('12) 14.1% → ('22) 33.5%

< 日 중소기업 CEO 연령 및 후계자 부재율 >



(출처) 일본 중소기업청 후계자 부재율 동향조사

< 韓 중소 제조업 CEO 연령 >



(출처) 중기부, 중소기업실태조사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기업점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기보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 설치 및 M&A특례보증 신설('24.12월)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의 시범 조성도 적극 검토하여 이를 통해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하여 심화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전략총괄과(개혁TF)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420)
		담당자	사무관	이제홍 (044-204-7436)
			주무관	김은성 (044-204-743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미래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TF」 참여 전문가**

분야		성명	소속	직책
연구기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선		연구위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희철		연구위원
		황현영		연구위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 전문가	업계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법률 전문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승규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VC/CVC/PE 그룹장)
	M&A 전문가	이도신	삼일회계법인	Deals MM Leader
		황정현	TS인베스트먼트	전무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공공기관	김진형	IBK 기업은행	M&A사업팀장
		박남근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장